

가전업계, 성장 정체 넘는다… ‘친환경·AI’ 주거시장 공략

삼성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택 선배 제작단계부터 다양한 AI 가전 결합

LG 모듈러주택 소재 다양화 나서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 공급 확대

가전 사업 성장 정체에 직면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거 시장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주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과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하는 히트펌프를 앞세워 합산 4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두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19일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5년 1096억달러에서 2030년 1429억달러(약 200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히트펌프 시장은 그랜드뷰리서치 기준 2030년 1480억달러(약 2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양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독일



삼성전자가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선보인 ‘삼성 AI 모듈러 홈’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가전전시회 ‘IFA’에서 모듈러주택 ‘LG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공개하며 시장에 먼저 뛰어든 LG전자는 최근 목재소재 모듈러주택 개발을 위한 협력사 물색에 나섰다.

그동안 철골 소재 제품에 집중해 왔으나 가격을 기존 제품의 60~70% 수준으로 낮춘 목재 라인업을 추가해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8일에는 20평대 신제품 2종을 출시해 8평부터 24평까지 총 8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모듈러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AI 모듈러 홈’을

선보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 등 자사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 20여종을 주택 제작 단계부터 결합해 집 전체를 하나의 스마트홈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 모두 모듈러주택에 자사 냉난방 설비와 AI 가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히트펌프 사업에서는 주거용을 넘어 산업용까지 영역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말 영국 콘월 지역 1500세대 규모 주거단지 재개발 프로젝트에 히트펌프 기반 공조 솔루션을 대량 공



LG전자가 지난달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마련된 ‘MONO Core 72’ 체험관. /LG전자

급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국내 바닷난방 특성을 반영한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했다.

LG전자도 지난 5월 기존 주택의 운수 배관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했고 지난달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1000여세대 주거단지의 냉난방 솔루션을 수주했다. 지난 8일에는 출수온도를 108도까지 높은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지공장에 공급했다.

실제 양사가 주력해 온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 금지 등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보조금 지원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21개국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0만대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히트펌프가 2035년까지 선진국 건물 난방의 지배적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정책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재정 지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3월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난방도 히트펌프로 빨리 전환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고효율 히트펌프와 에너지 관리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다양한 냉난방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K-반도체 투톱, D램·HBM 등 제조장비 발주 확대

삼성 평택 5공장 조기가동 움직임
SK 용인 클러스터 Y1 구축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에 적용될 최첨단 D램 생산라인 구축을 앞당기며 장비 투자에도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다바이스 솔루션 반도체(DS)부문은 최근 평택 5공장(P5) 페이스1에 투입할 반도체 제조장비 선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P5는 펌프공사와 함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 및 화학물질 공급 설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

으며 장비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구매주문(PO)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5는 클린룸 6개를 갖춘 3층 구조의 초대형 생산시설로 계획됐다. 기존 평택 사업장의 다른 생산시설보다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P5의 생산능력을 기존 평택 팹보다 5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BM을 포함한 최첨단 D램 생산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파운드리 생산라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페이스1에 이어 페이스2 장비사 선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통상 반도체 생산시설은 라인을 단계별로 구축하지만 시장 수요에 맞춰 후속 라인의 장비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움직임으

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전체 P5 가동 시점은 2028년으로 알려졌으나 첫 번째 라인은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생산시설인 Y1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Y11 단계(Ph1)에 투입할 반도체 제조장비 발주를 시작했으며, 초기 생산 규모는 월 2만장 수준으로 알려졌다.

Y1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생산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27년 5월로 계획했던 1단계 가동 시점을 같은 해 2월로 앞당겼다. 이에 맞춰 내년 2월 시생산 라인을 구축한 뒤 3~4월부터 장비 반입과 셋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Y1에서는 6세대 10나노급(1c) D램이 생산된다. 1c D램은 현재 가장 앞선 세대

의 D램 공정으로 AI 서버용 DDR과 LPDDR은 물론 차세대 HBM4E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장비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사들과의 판매단이 계약도 예년보다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배경에는 AI 메모리 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생산능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도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 주요 업체들이 생산라인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PV5 WAV와 함께 23년 만에 여행을 떠난 김은유 씨 가족.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더 무빙 룸’ 영상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가치를 담은 기아 목적기반차량(PBV) PV5 WAV 기술로 인해 바뀐 우리의 일상과 이동의 의미를 조명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PBV PV5 WAV와 함께한 이야기 영상 ‘더 무빙 룸(The Moving Room)’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한 영상은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은유 씨가 기아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의 지원을 받아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기아 PV5는 의료·물류·레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첫 전용 PBV다.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PV5 WAV는 교통약자 특화 모델로, PBV가 지향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상 제목 ‘더 무빙 룸’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일상과 의료 환경이 PV5 WAV를 통해 방처럼 익숙한 공간 그대로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PBV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가치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키윗, 美 조선사업 힘 모은다

전략적 파트너십… 선박 공동건조 모색

HD현대가 미국 종합 설계·조달·시공(EPC) 기업 키윗과 선박 공동 건조 및 블록·모듈 현지 생산을 추진하며 미국 조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HD현대는 키윗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미국 현지에서 선박 공동 건조 방안을 모색하고 선박용 블록과 모듈 생산에 협력한다. HD현대의 설계 역량과 기자재 공급망, 선박 건조 기술에 키윗의 현지 제작·건설 역량을 결합해 미국 내 사업을 공동 추진하



HD현대가 미국 종합 EPC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왼쪽부터 키윗오프쇼어 채드 존슨(Chad Johnson) CEO, HD한국조선해양 최한내 기획부문장). /HD현대

고, 선박용 블록과 모듈의 현지 생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LG전자, 재건축 단지 구독서비스 확대

현대건설 협력… 압구정 7000세대 대상

AI홈과 가전 구독을 결합한 주거 서비스가 건설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LG전자가 프리미엄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신축 단지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2·3·5구역) 조합원 7000여 세대는 향후 입주할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과 전문 케어 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구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구독을

선택한 입주민들은 최신 가전의 편리함과 전문가의 꼼꼼한 관리를 동시에 누리며 한층 쾌적한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조합원에게는 구역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 5~7종의 가전 라인업이 선택지로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주거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을 관리 서비스와 결합한 구독 모델이 새로운 주거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가전업체는 제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과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같은 B2B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